

## 내가 그니라 (요한복음 18:1-11)

오늘도 언약을 잡고 예배 드리면 하나님이 현장에서 일하실 줄 믿는다. 오늘 말씀 제목은 내가 그니라 이다. 내가 그리스도라는 말씀이다. 그러므로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내가 그 언약이야 라는 말이다. 다시 한번 이 언약이 발견되고 내 마음속에 깊이 언약이 되기 바란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 그래도 아직 삶이 남아 있다. 그러니까 구원만 믿음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삶도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 그러니까 믿을 뿐 아니라 삶도 언약으로 잡아야 한다. 그리고 그 언약을 개인적으로 누리게 되면 영적인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에 약속하신 것이 내 인생에 실제로 나타나는 것이다. 증인되어서 땅끝까지 가는 것이다. 이것이 언약이다. 이 여러 가지가 처음 인생 처음부터 끝까지 가는 항목이 언약이라는 것 하나에서 다 나타나는 것이다. 놀라운 일이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전부 이렇게 살아야 한다. 이것은 명령이 아니라 원래부터 원리이다. 이 원리는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천국은 열려 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여기 들어오면 그 약속대로 되는 것이다. 그런데 구원 받은 자가 이렇게 안살고 옆길로 가면 지옥은 안가지만 힘들다. 그리고 다 살고 나서도 남는게 없고, 우리가 좋아하는 작품, 100년의 응답 이런 것은 절대 안된다. 언약으로 살면 100년의 응답이 오는 것이다. 어찌 생각하는가? 믿는 사람들은 각자의 신앙생활을 가지고 있다. 틀리지 않았고 잘못되었다고 말할 수는 없다. 그런데 사실은 잘못되었다. 왜냐면 대부분의 믿는 성도들의 삶이 신앙생활이 언약중심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성취할 내가 그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다. 다시 한번 본문을 통해서 이 사실을 발견하고 다시 한번 언약으로 잡아야 한다. 잡는 행위가 중요하다. 안 잡고 그냥 놔두면 그대로 있는 것이다. 믿기만 믿고 그냥 놔두면 거기 있는 것이다. 믿을 뿐만 아니라 잡아야 한다. 잘 안잡힌다. 계속 해야 한다. 그러면 누려지는 것이다. 그러면 달라진다. 집에서 예배드리는 분도 이 축복이 있기 바란다. 집에서 예배 드려도 집중해야 한다.

복음을 언약으로 잡은 자, 우리 같이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예배와 기도가 전부 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예배와 기도가 아니면 소통이 안된다. 이 소통을 위한 근본 기준이 복음, 그리스도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모든 것의 출발이다. 믿음이 없으면 이제는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기도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의 현장에서 일하신다. 그래서 이 언약을 잡고 지속적으로 예배 드리고 기도드리는 사람은 다르다. 이것이 너무 중요하고 이거 말고 길이 없다는 때도 자주 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먼저 말씀을 주신다. 그리고 앞으로 그대로 하실 것이라고 하셨다. 이렇게 하는 신은 아무도 없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잘 들어야 하고 각인이 되어야 한다. 렘넬트, 청년들도 어릴때부터 각인되면 최고의 재산이 된다. 모세가 80세가 되었을 때 이 말씀이 들어왔다. 그 전에 복음 알고 있었다. 어머니로부터 들었다. 창세기 다 외우고 있었다. 그런데 말씀 다 들어온 이후부터 다른 사람이 되었다. 성경에 중요한 인물들 전부다 그렇다. 나는 가끔씩 간증을 듣는데, 평신도들도 말씀 많이 받는다. 우리 중에도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다른 어떤 교회보다 우리는 말씀에 집중하는 교회라고 자부한다. 그래서 오늘도 다시 한번 한주간 살아갈 말씀을 받기 바란다. 오늘 말씀 안에서 평생의 말씀 나오면 대박나는 것이다. 어제 전도훈련때 마지막에 평생 기도제목이라는 단어가 나왔다. 내가 평생 언약으로 잡고 기도하고 올인할 말씀을 받았다면 그것이 전 재산이다. 그것은 내게로 향한 하나님의 평생의 소원이다. 그러면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고 그러면 흑암 무너지고 기적이 계속된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원대로 살고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절대 불신자처럼 내버려두지 않는다. 전에는 우리가 무조건 열심히 하는 스타일도 있었다. 지금은 그렇게 안한다. 하나님에게는 절대 계획이 있다. 그 근본은 그리스도이고 방향은 세계복음화이다. 이것은 절대계획이다. 그런데 모세시대에는 그것이 가나안이라는 단어로 표현되었다. 이 시대는 237이고, 그 사람을 치유해야 할 제 1번 이슈로 등장했다. 그리고 그것도 영적문제이다. 모세시대에 가나안과 같은 단어가 이 시대에 영적치유이다. 지역은 가나

안이고 전세계이고 내용은 영적치유이다. 전부다 사람들이 정신문제로 난리다. 누구든지 인정한다. 이것은 계속 더 심해질 것이라고. 답은 복음 하나 뿐이다. 복음이 있어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자가 치유받는다. 그러나 복음 아니고 안되는 병이 계속 생기는 것이다. 인간이 예를 들어 하나님 흉내내서 다 만들어도 정신은 못 만든다. 인간은 공장을 만들어도 영혼을 생산하겠는가? 지가 돌아버린다. 먼저, 복음 아니면 절대 안되는 문제가 계속 일어나고 계속 심하게 일어나고 그러면 답은 가나안 밖에 없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무엇인가? 사람을 살리라는 것이다. 그 중에서도 구체적으로 들어간 절대 계획이 치유라는 것이다. 영적 준비는 복음으로 하는 것이다. 복음 아니고는 영적 준비가 안된다. 내가 그라는 것이다. 다시 한번 언약되기 바란다. 절대 계획을 위해 살아야 한다. 해도 되고 안해도 되는일을 뭐하러 하는가? 거기 왜 신경을 쓰나?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잡고 살면 성경처럼 응답받는 것이다. 이것이 100년의 응답이다. 때로는 매일매일 조그마한 일들이 기적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오늘 예배 드리는 중에 이 은혜가 있기 바란다. 그냥 예배가 아니다. 말씀만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다. 그 말씀 통해서 치유되는 것이다. 응답 받는 것이다. 내 현장의 기적도 일어나는 것이다. 하나님은 다 할수 있다. 하나님이 할수 있는 이 모든 것을 언약으로 잡는 것이 중요하다. 언약 잡고 예배 드리는 축복이 있기를 바란다.

### 1. 내가 그니라.

예수님이 잡히시는 장면이 본문이다. 가롯 유다가 군대, 대제사장 이런 사람들 허락받아서 아래 사람들, 병사들을 데리고 왔다. 3절에 보면 무기도 가져오고 횃불도 가지고 오고 난리났다. 그리고 그 때 예수님이 그들보고 물어왔다. 누구를 찾느냐? 내가 나사렛 예수라고 하였다. 내가 그다. 이러니까 6절에 이 사람들이 물러가서 엎드려졌다. 주님이 누구신가를 설명하는 확실한 장면중에 하나이다. 그리고 주님이 그 사람들을 보고 나를 잡으러 왔으니 제자들을 손대지 말라고 했다. 그 때 성질 급한 베드로가 종인 말고 의 귀를 쳐버렸다. 그 자리에서 귀가 떨어져 버린 것이다. 이 장면을 마 26장 52절부터 설명하기를 니 칼을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진 자는 칼로 망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53절에 너는 내가 열두 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수 없는 줄로 아냐고 말씀하셨다. 사람들은 천사를 모른다. 예수님은 너무나 잘 아신다. 인간은 눈에 보이는것만 보이는 것으로 생각한다. 천사 한명만 오면 군사 다 죽여버린다. 18만 5천명도 천사 한명에 의해 그 날 다 죽어 버렸다. 그리고 54절에 내가 그렇게 하면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는 것이다. 예수님은 말씀을 따라가는 중이시다. 예수님은 이미 말을 다 해놓으셨다. 자꾸만 자기 생각으로 자기 해석을 해서 그렇지 다 이야기 해냈다. 그래서 인생이 아주 간단한것인데 내 생각이 자꾸만 그리로 안 가고 싶어 하는 것이다. 이게 사단이다. 사단이 눈에 안보이게 자꾸 다른 길로 가고 싶어 하는 것이다. 이것을 죽어야 하는데 잘 안되는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이다. 그리고 이 사건에 대해서 누가복음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귀를 만여 갖게 하시더라고 하셨다. 22장 51절에. 이렇게 해서 예수님은 잡히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만에 부활하셨다. 이런 과정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내가 그라는 것이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 예수님이 내가 그라고 말씀하셨다. 이 사람에게 하신 말씀은 그 병사들에게 나사렛 예수를 찾는다고 말했다.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는 곧 그리스도이다. 그래서 내가 그라는 것은 내가 그 그리스도라는 뜻이다. 내가 그리스도라고 말했을 때 아무 힘 없이 물러가서 엎드려졌다. 너무 당연한 일이 일어났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한다. 인간들이 감히 잡으려? 다 죽어도 시원치 않는데.. 그래서 마가복음 14:49에 예수님은 힘이 없어서 잡힌 것이 아니라 내가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쳤지만 너희가 잡지 않았다고 하였다. 그러나 지금 이러는 것은 성경을 이루려 함이라고 하셨다. 때가 되어서 성경을 이루기 위해서 잡히는 것이지 내가 힘이 없어서 잡히는게 아니라는 것이다. 내가 허락해서 잡는 것이지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얻을 권세도 있다고 하였다. 오늘 본문에서는 내가 그라고 하셨지만 그것은 우리에게 하신 일이다. 주님은 자기 백성을 위해서 오셨다. 세상에 모든 죽어서 지옥갈 사람 위해 온 것이 아니다. 자기 백성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성경은 전 세상에 선포하였다. 그런데 사실 자기 백성에게 말씀 주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하는데 자기를 잡으러 온 그 인간들

에게 내가 그리스도라고 말하겠는가? 성경에 기록해서 나는 그리스도야 라고 자기 백성들에게 말하고 싶은 것이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분이다. 구약 성경에서 오실 것이라고 약속되었던 바로 그 분이다. 오셔서 이 모든 저주에서 해방, 이 언약을 완성하신 그 분이다. 사단에서 꺾어서 해방을 시킨 그 분이다. 그 안에서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오늘도 24시간 만날 수 있다. 이 길을 여신 바로 그 분이다. 성경은 계속 이 사실을 반복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왜냐하면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고 핵심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성경은 알고 보면 참으로 간단한 책이다. 원리 하나만 알고 있으면 되는 것이다. 처음부터 끝까지 그 자리에서 통해 버린다. 계시록 공부하는 분들 많이 있는데, 바보 같이 공부할 필요 없다. 다 알고 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는 계속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참모적으로 이야기 해주신 것이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이런 일 필요 없다. 이것을 받고 안 받고 그런거 필요 없다. 여하튼 예수님이 그리스도야. 자기들 끼리는 받고 안 받고 해도 필요 없다. 예수님 믿으면 너는 구원 받는 거야. 그거 말할려고 계시록 쓴 것이다. 간단한 것을 놔두고 자꾸만 생각을 많이 하고 공부를 하게 해서 예수만 믿으면 안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가게 하는 것이다. 따라갈 이유가 없다. 성경 전체의 결론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다. 그것 믿으면 구원 받아 끝이다. 아브라함 예수 믿었다. 그러니까 희생 제사를 늘 드렸지. 단을 쌓았다. 노아도 예수 믿었다. 그래서 노아만 구원 받았다. 그래서 희생제사 드리는 것이다. 전부다 다 같다. 그러니까 그것만 하면 되는데 구원 받으면 되지, 구원 받고 사람 살려면 그게 인생이다. 이런 설명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이유가 각인이 안되어서 그런 것이다. 그것을 진짜 믿었으면 그것으로 끝나야 하는데 끝나지가 않는 것이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면 끝나야 하는데 끝이 만나니까 계속하는 것이다. 끝이 안나면 복잡하는 것이다. 끝이 나면 간단해지는 것이다. 그래서 계속 반복적으로 이야기 해서 각인해라 뿌리를 내려야 하는 것이다. 너도 모르게 그리스도가 체질되라고 말하는 것이다. 믿고 끝내지 말고 언약으로 딱 잡아야 한다.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 그런데 삶이 남았다. 우리가 증인되어야 하고. 이 삶을 위하여 그 언약을 잡아라는 것이다. 믿으면 구원 받는다. 그리고 그 언약을 누리면 증거 나온다. 여기에 깊어지면 정복을 하는 것이다. 인생을. 답은 항상 그리스도 여기에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 언약으로 문제에 도전하고 흑암을 쫓고 증인되라는 말이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가 예수님의 질문에 대답했다. 주님은 그리스도라고 고백했다. 대답을 정확하게 했다. 이 때에 예수님이 세가지로 약속해주셨다. 반석위에 세워진 하나님의 교회 약속했다. 음부의 권세는 이기지 못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대단한 것이다. 우리는 눈이 안 보이지만 이게 전부 영적 세계라서 사단이 원인이라서 이게 맨날 나를 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음부의 권세가 너를 치지 못한다고 했다. 그리고 천국 열쇠를 너에게 줄테니 천국을 열으라는 말이다. 어떻게 해서 베드로가 이런 축복을 받았냐는 것이다. 대답을 바로 했다. 내가 누구냐고 했을 때.. 오늘도 우리가 대답을 바로 하면 된다. 다른 것 필요 없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대답을 바로 하라. 그 그리스도가 무엇인가? 모든 문제의 해결이고 저주에서 해방이다. 운명에서 해방이고 뱀의 머리를 박살내었다. 지금도 24시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이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면된다. 매일 매일 이 대답으로 시작하는 것이다. 그러면 매일 반석 위에 세워진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것이다. 평생 하면 내 평생이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가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음부의 권세가 절대 못 이긴다. 이유는 나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고백했다. 그리고 천국 열쇠가 있다. 이것을 계속 하는 것이다. 이것이 은혜가 되면 굉장한 치유 일어날 것이다. 역사 일어날 것이다. 응답은 이거 하나 뿐이다. 여기서 끝내야 한다. 237, 치유, 서밋 여기에 있다. 이것도 없이 237, 치유 서밋하러 돌아다니면 힘들어 죽는다. 오늘 예수님이 내가 그녀라 라고 말했다. 내가 이 모든 약속을 행할 수 있는 그 분이라는 것이다. 다시 한번 이 눈이 열리기 바란다. 눈이 열리는 것은 또 다른 것이다. 그렇구나 되어야 눈이 열리는 것이다. 다시 한번 언약되기 바란다.

## 2. 언약 인생

예수님이 언약을 완성하셨다. 다른 것 하신 것이 아니다. 살아 계셨을 때

기적은 언약을 설명하는 것이다. 나는 그 언약이야. 그 언약이 하나님이야. 그러므로 5병 2어는 식은 죽 먹기다. 물 위로 걸어가게 뭐가 새롭나, 당 연하지. 내가 하나님인데, 그말 이다. 그래서 우리가 확인할 게 하나 있다. 내가 이 언약의 인생을 사는가? 생각해야 한다. 무엇으로 사는가? 여러분의 인생이 뭐냐는 것이다. 언약 인생인가? 언약을 따라가는가? 언약을 언약으로 잡고 있는가? 그러면 뭐하고 있는가? 이게 아니라면? 고쳐야 한다. 틀렸다. 하나님하고 길이 안 맞는 것이다. 그래서 인생에 증거가 별로 안 나타난다. 고치면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이다. 간단하다 말해 놔다. 그러니까 말하지 말고 그리로 따라가라. 그러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언약, 내가 이 언약의 인생을 살고 있다면 더 이상 필요 없다. 그냥 가면 된다. 그러면 인생이 완성된 인생으로 나타날 것이다. 그리고 필요한 것은 인생 완성된 인생을 위하여 하나님이 필요한 것 그 때 그때 공급하실 것이다. 우리가 만일 언약을 잡고 하나님 앞에 남은 자라면 이래야 한다. 나는 언약을 잡았는데, 하나님 앞에 남은 자가 아니야, 그래 해도 된다. 지옥은 안 가니까. 언약을 잡고 살아 났는데 언약이 일들이 아니야? 그래도 괜찮다. 지옥은 안가니까. 그러나 언약 잡고 하나님 앞에 남은자이고 그 인생을 살기로 결심하면 역사가 일어난다. 하나님은 절대 우리 인생을 아무데나 흘려가게 두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것을 실시간으로 도우실 것이다. 만나 거둘 때 하나님이 그때 그때 말대로 안하면 바로 썩어 버린다. 다 아신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 다 아시지 않겠나? 오직 무엇인가? 영적으로 언약을 잡고 실제 인생의 방향을, 그 언약을 땅 끝까지 전하는 거기에 방향을 맞추는 것이다. 그러면 준비가 되는 것이다. 그러면 시간만 흘러가면 된다. 내가 할 일은 언약 누리고 힘을 얻고 감사하고 기도하고 기다리고, 이것이다.

우리는 100년의 응답이라는 단어를 좋아한다. 100년의 응답을 기도제목으로 두고 기도하는 분들도 많을 것이다. 처음에는 이게 어려울줄 알았다. 중간에 가만히 보니 100년의 응답 이게 너무나 쉽다. 100년의 응답을 받은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 답이 금방 나온다. 그 분들이 보면 근본 언약의 사람들이었다. 아브라함은 언약의 후손이었다. 근본 언약의 사람이었다. 전부 다 그렇다. 요셉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다. 먼저 근본 언약의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 예수를 믿는 사람 되면 된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소원에 따라 개인이 잡고 있는 세계복음화의 언약이 있으면 된다. 그 분들이 전부 다 그렇다. 그래서 이 두 개를 가지고 100년의 응답을 받았다. 그런데 이 100년의 응답을 보면 5달란트의 응답이 있다. 2달란트의 응답도 있을 것이다. 이런 분량 뿐 아니라 각각 100년의 응답이 있을 것이다. 이 모든 백년의 응답은 똑같다. 나는 더 많은 응답 받고 싶으면 그건 욕심이다. 만일 이것을 기도제목으로 잡으면 받을수도 있을 것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찾는 것이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하나 있다. 세계 복음화 그것 따라 살면 된다. 때로는 하나님께 말씀 못 받는 경우도 있다. 이 때도 괜찮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믿는자 모두에게 주신 사명이 있다. 그것 향하여 살면 된다. 그렇게 살고 있으면 거기서 나의 것이 나온다. 그것이 나의 달란트가 되고 사명이 된다. 인간은 모든 것을 다 할수 있도록 태어나지 않았다. 하나님이 계획을 따라서 그 일부를 감당하다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아 가도록 창조되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어떤 것도 내 뜻대로는 절대 안된다. 이것이 사실인 것 같으면 우리는 전부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가야 한다. 내 뜻대로 되는 것은 하나도 없기 때문이다. 이것이 가장 지혜로운 것이다. 그런데 자꾸만 사람들이 생각이 많다. 오늘 우리가 고치고 이 길로 들어가기 바란다.

오늘 주님은 내가 그라고 말씀하셨다. 참 감사하다. 내가 그리스도라고 말씀해주셨다. 아니었으면 어쩔뻔 했나? 내가 너희의 그라는 뜻이다. 우리는 이 사실을 잊으면 안된다. 주님은 나의 그 분이다. 나의 그리스도이시고 주인이다. 나의 하나님이시고 약속하신 그 분이다. 이 분이 나를 저주에서 건졌다. 당연히 그 분이 원하는데로 살아야 한다. 여기에서 옆길로 가면 힘들게 된다. 왜 힘이 드냐면 말씀하고 안 맞아서 그렇다. 말씀은 전체가 그리스도와 세계 복음화를 말하고 있다. 거기서 가면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하고 맞게 되는 것이다. 맞으면 어떻게 되겠는가? 우리 인생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이다. 그것이 기적이고 응답이다. 이렇게 살아갈수 있도록 오늘도 말씀 주신 줄 믿는다. 언약되기 바라고 지금 캠프 기간인데 캠프에도 중요한 문이 열리는 축복이 있기 바란다.